진실이 오른다 -밀레
MILLET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4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남부대학교 | 전남과학대학교
062)970-0114 061)360-5050

광주시 남구 전통시장 조례개정 전면 보류 ▶7
내년 광주비엔날레 20년 특별전 ▶12
2014 대입 정시 실전 전략 ▶17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 222-8111
kwangju.co.kr
제19632호 1판 2013년 12월 10일 화요일 (음력 11월 8일)

보훈처 '임을 위한…' 기념곡 지정 5개월째 회피

2013 이슈 진단 ❶ 5·18역사 왜곡

국회서 약속까지 해놓고 반대 명분만 축적
'일베' 사이트엔 5·18 폄훼 글 여전히 넘쳐

#.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지난 7월 13일 국회에서 이렇게 답변했다. '5월 광주'의 대표곡으로 30년 넘게 굳어져왔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퇴출'시키려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힌 뒤 국회에 출석해서다. 하지만 한 해가 몇 일 남지 않았음에도, 기념곡 지정 움직임은 찾아보기 어렵다.

#.'5·18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7일 보수 인터넷사이트 '일간베스트'에 올라온 글의 제목이다. 게시물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대의 사진을 올린 뒤 "5·18 폭동 기억하니? 첫 시작 구호는 김대중 석방이었지. 이렇게 가다가 전두환 정치탄압 아웃. 이러며 폭동을 일으켰다"며 5·18 민주화운동을 노골적으로 비하했다.

1980년 5월, '계엄령 철폐, 신군부 퇴진'을 요구한 시민들을 유혈 진압한 뒤 33년이 흘렀다. 많은 게 바뀌었지만 '5월 역사 왜곡·폄훼' 시도는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다.

그 사건 이후 5·18 가해자들에 대한 사법적 처벌이 이뤄지고 '폭동'은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항쟁 관련자들은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됐고 5·18이 정부 공식 기념일로 지정됐지만 5월 정신의 '전국화'와 '세계화'는 요원하다. 아니, '5월 정신 왜곡·비하 사태'는 오히려 심해지는 등 진행형이다. 올해의 경우 '5월 역사 왜곡·폄훼' 움직임은 정부가 5·18 광주민중항쟁 33주년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대신할 새로운 추모곡을 제정키로 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서 촉발됐다.

여기에 검증된 사실까지 건드리며 역사를 왜곡하는 보수 인터넷 사이트와 종합편성채널의 왜곡시도가 가세했고 '역사 교과서 논쟁'이 더해지면서 한국 사회가 역사 왜곡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정치권·시민단체·5월 단체 등은 정부의 '임을 위한 행진곡' 퇴출 계획을 '역사 지우기'로 규정하고 맞섰다. "'임을 위한 행진곡'보다 더 어울리는 추모곡은 세상에 없다"며 대체 추모곡 제작 중단 목소리를 높였고 국회에서는 기념곡 제정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2면에 계속〉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겨울비 그친 캠퍼스 9일 겨울비가 그친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정문 가로수 길을 학생들이 거닐고 있다. 이 날 광주·전남지역에는 5~10㎜ 가량의 비가 내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는 11일 광주·전남지역에 한 차례 더 비나 눈이 온 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했다. ▶관련기사 7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철도노조 총파업…여객·화물운송 차질

새마을·무궁화호·화물열차 단축 운행
코레일 노조 집행부 194명 고소·고발

전국철도노조가 9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광주·전남지역 여객·화물운송이 일부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대체 운송수단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연말 물류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2면〉

철도노조가 4년 만에 파업에 들어가면서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광주·전남지역 여객과 화물 운송이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 철도노조 호남본부엔 2100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다. 이중 필수인력인 1100명을 제외한 1000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기준 용산~광주·목포발 새마을호 열차는 4회 중 2회, 무궁화호는 16회 중 2회가 단축 운행됐다. 또 광주·목포~용산발 새마을호는 16회 중 4회, 무궁화호는 16회 중 1회 운행이 중단됐다.

화물 열차 운행은 다소 심각한 상황이다. 화물 열차 운행은 44회 중 15회로 29회(65.9%)가 줄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물류수송도 하루 평균 1만3590t에서 6000t으로 55.8% 급감했다.

현재 광주 효천역에선 유류, 순천 태금역에선 석탄·철강, 광양역에선 수출입 컨테이너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연말 수출입 물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물류대란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철도노조는 "사측이 수서발 KTX 분리 작업을 중단하면 파업을 철회하겠다"고 했지만, 코레일 측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코레일 측은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조 집행부 194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하는 한편,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재 광주·전남지역에선 파업에 참여한 철도노조원 104명이 직위해제됐다.

한편, 경실련·참여연대·한국 YMCA 등 218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코레일은 수서발 KTX 운영사 설립 이사회를 중단하고 유일한 철도운영자로서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2014 학부 신입생모집
정시모집
2013년
12월19(목)~23일(월)
광신대학교
입학문의(062)605-1114

알림

제1회 무등산 국립공원 포럼

'무등산 대상'도 시상…16일까지 추천 접수

광주일보사는 광주시산악연맹,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광주·전남녹색연합과 공동으로 '제1회 무등산 국립공원 포럼'을 오는 20일 개최합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포럼이 주관하고 광주시, 전남도가 후원하는 이번 포럼은 국내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의 바람직한 관리 및 정책 방향과 민관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보존·이용, 시민 참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창립 포럼에서는 '제1회 무등산 대상' 시상식도 열립니다. 무등산을 널리 알리고 지키는데 기여해온 인사나 단체가 그 대상으로, 오는 16일까지 추천을 받습니다. 무등산을 세계적인 국립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이번 포럼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 제1회 무등산 국립공원 포럼

- 일시 : 12월 20일(금) 오후 4~7시
- 장소 : 광주 무등파크호텔 4층
- 주제 발표 : 바람직한 무등산 국립공원 관리 및 정책방향
  (조계중 순천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무등산 국립공원 중장기 관리전략
  (안시영 무등산 국립공원사무소장)
- 패널 토론

■ '제1회 무등산 대상' 추천

- 추천 대상 : 무등산을 널리 알리고 지키는데 기여한 인사 또는 단체
- 추천 기간 : 12월 10일(화)~12월 16일(월)
- 추천 방법 : 광주일보 홈페이지(www.kwangju.co.kr) 팝업창에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opinion@kwangju.co.kr)로 접수(문의 : 062-220-0612)

光州日報社

광주 U대회 개·폐회식 총감독 박명성씨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강운태 광주시장·정의화 국회의원)는 "개·폐회식 총감독에 해남 출신인 박명성(51·사진) 신시컴퍼니 대표를 내정했다"고 9일 밝혔다.

조직위는 "박명성 총감독 내정자가 풍부한 무대 경험과 최고의 뮤지컬 흥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광주U대회를 전 세계 대학생의 꿈과 열정의 무대로 만들고, 한국 전통문화와 대중문화의 다양성을 가장 역동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U대회 조직위는 "U대회 개폐회식 총감독 자문위원회에서 3차에 걸친 회의 끝에 박명성씨를 총감독으로 가장 많이 추천해 내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활동을 시작할 박 감독은 1982년 연극배우로 문화예술계에 입문한 이후 30여 년간 무대감독, 연출가, 공연분야 프로듀서로 활동하면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게 U대회 조직위의 설명이다.

1200회 공연에 230만명(매출 1400억원)의 관객을 끌어들인 '맘마미아'를 비롯해 '아이다', '시카고' 등 숱한 히트작을 만들어낸 박 감독은 광주서석고와 서울예술대학, 단국대, 단국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예술감독을 맡은 데 이어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